

문화광장



김연주
문화공간 양 기획자

미술 용어의 문제

미술은 1872년 독일어 쿤스트게베르게(Kunstgewerbe)를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새롭게 만든 말이다. 쿤스트게베르게는 현재 일본에서 공예예술로 번역되고 있으니 당시 오역한 셈이다. 어쨌든 미술은 공예예술, 예술의 번역어로 사용되었다가 1887년 이후에야 지금과 같이 시각예술만을 의미하게 됐다. 짐작할 수 있듯이 번역을 위한 신조어였던 미술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자연스럽게 사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같은 '작품에 대한 평가적 가치'에는 미술이라는 용어가 당시 어떻게 이해됐는지 잘 나타나 있다. 그는 1910년대를 회고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나의 직업이 미술이란 말을 들은 순사군(巡査君)은 크게 술(術)자에 의심을 품고 순사군이 가로되 '미술은 요술의 유(類)인 줄 알거나와 그러한 것을 배우려고 유학을 하였나.'라고 하니 나는 몸에 소름이 끼쳤다." 이처럼 이미 1880년대 우리나라에 미술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으나, 1910년대까지도 미술은 사람들에게 무척 낯선 단어였다.

130여 년이 지나 이제는 미술이라는 용어를 누구나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오늘날도 20세기 초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종종 한자어 뜻에 얽매어 미술을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기술' 정도로 생각한다. 따라서 아름답지 않은 미술은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을 보고 '저것도 미술이냐.'라며 무시한다. 미술이라는 번역어가 등장했던 때 이미 유럽에서 미술은 사실주의, 인상주의 등을 지나오면서 아름다움과 멀어지고 있었는데 말이다. 미술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이같이 미술을 오해하는 일은 줄고, 다양한 매체, 표현, 주제로 확장된 미술을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이다.

이제는 일본의 번역어 대신 서양에서 미술 용어를 바로 가져와 사용한다. 며칠 전 '프리즈 서울'이 열려 큰 화제가 되었는데, '프리즈 서울'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 아트 페어(Art Fair)는 미술 건

본시장, 미술 박람회 등과 같이 번역하지 않고 아트 페어라고 음차해서 사용한다.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등의 용어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번역어가 있는 용어까지도 음차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화랑이라는 이름이 대부분 ○갤러리로 바뀌었다. 19세기 말에 일본의 번역어를 처음 접했던 사람들도 21세기 초 음차한 용어를 처음 접한 사람들이 그 뜻을 더 잘 이해했는지 궁금하다.

일본에서 번역한 용어든 중국에서 번역한 용어든 필요하다면 받아들이야 하고, 서양 용어를 음차해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뜻을 전달하거나 이해하기 쉽다면 당연히 음차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우리나라 미술계가 서양의 지식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사설

햇빛도 '공적자원'... 기금 내실화 계기로

태양도 '공공자원'으로 인정, 사업자 대상 공유화 기금 조성이 추진된다. 바람과 햇빛 모두 공적자원으로 인정되고, 태양광 발전사업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처럼 기부금을 내도록 한다는 얘기가. 도가 풍력발전과의 형평성,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출력제한 문제, 환경훼손 우려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긍정 평가된다.

반영한 것이다. 최대 규모인 수망태양광발전사업이 본격 추진돼 환경훼손 우려에다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가 제기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거기다 태양광발전설비 규모도 작년 말 기준 481㎿를 기록, 풍력발전설비 295㎿보다 186㎿ 많을 정도로 확산일로여서 수급관리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도는 최근 '태양광 개발·발전 이의 공유화 적정기준' 용역을 추진, 햇빛의 공공자원화를 분명화 했다. 이번 용역은 햇빛도 공공자원으로 보고, 태양광발전 조정할 근거와 적정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그간 풍력발전사업자들이 2017년부터 공유화 기금 조성을 한 상황서 태양광 발전도 공적자원 사용으로 기부금을 내야 한다는 여론을

도가 햇빛의 공적자원화로 공유화 기금도 확대되는 만큼 '기금 내실화'도 절실했다. 현재 추진, 햇빛의 공공자원화를 분명화 했다. 이번 용역은 햇빛도 공공자원으로 보고, 태양광발전 조정할 근거와 적정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그간 풍력발전사업자들이 2017년부터 공유화 기금 조성을 한 상황서 태양광 발전도 공적자원 사용으로 기부금을 내야 한다는 여론을

열린마당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많은 참여를



문원영
제주도 평생교육팀장

매년 10월 평생학습문화 확산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지역별로 평생학습 주간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22년 평생학습과 떠나는 가을소풍'을 주제로 동아리 전시회·발표회와 평생교육 정책토론회 등이 개최된다.

이를 위해 경연대회에 참가할 동아리 팀(전시 9팀, 공연 15팀)을 9월 20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올 한 해 평생교육 과정에 참여했거나 자체 동아리 활동에서 제작된 회화, 조각 등 전시작품과

연주, 연극 등 공연작품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동아리에서는 신청서와 작품소개서를 도 평생교육과로 이메일(minal762@korea.kr)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전시회) 10월 5일~25일 까지 3회차(각 팀 10작품, 회차별 3개팀, 1주일)로 나눠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에서, 평생학습동아리 발표회는 10월 7일, 12일, 13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참여 동아리는 심사를 통해 각각 3팀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 동아리 활동영상 제작 후 유튜브 게시(제주평생교육 올레학당)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는 개별 동아리들이 기량을 펼치려고, 다른 동아리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도내 동아리들이 많이 참여해 풍성한 가을소풍이 되길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아이들 위한 지원 방안 모색할 것"

연휴 아동양육시설 방문

○...오영훈 제주지사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

오 지사는 12일 제주시 소재 아동양육시설을 찾아 입소아동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낸 후 "보육원 원생들을 포함한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자치단체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아동양육시설의 운영 지원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

이어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사회복지기관 및 기업과 연계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 고대로기자

선물세트 과대포장 점검

○...제주시는 선물세트가 다양 판매되는 추세 명절을 맞아 오는 16일까지 과대포장 등의 위반 사항 점검을 실시.

이번 점검은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소비 동참을 취지로 이뤄지는데 제주시에 있는 대형마트 5개소에서 판매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재포장, 분리배출 표시를 확인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추석 선물세트 550개를 대상으로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점검을 벌여 포장공간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2개 업체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진선희기자

수출 드라이브로 새로운 돌파구 찾을 때

제주도가 수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을 가로막고 있는 무역장벽 등 각종 문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등 수출 활로를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수출시장 진출을 비롯 아시아 수출 거점기반 구축을 위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등을 구체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해외 신규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이달부터 도내 수출기업들의 무역장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한라봉·레드향·천혜향 등 제주산 만감류의 태국 수출을 위해 비관세장벽(위생검역) 제거에 나선다. 제주산 만감류의 태국 수출을 위해 태국 검역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농림부 및 농림축산검역본

부와 협상을 진행한다. 제주도는 해외통상사무소와 해외관광홍보사무소의 통합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 도내 기업들의 수출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 수출은 2억2592만달러로 사상 첫 2억 달러를 돌파했다. 전년 대비 45.8%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수입은 24.5% 늘어난 4억1808만달러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적자가 무려 2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무역불균형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때문에 수출 증대를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점에서 오 도정이 무역장벽 제거 등 수출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여 기대된다.

<p style="text-align: center;">부 고</p> <p>김 봉(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아버지 광산김공 찬홍(前제주도교육위원장·前제주도교육위원회 위원, 향년 90세)께서 서기 2022년 9월 10일 24시 0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p> <p>▶ 일 포: 2022년 9월 13일(화요일) ▶ 발인일시: 2022년 9월 14일(수요일) 오전 7시 30분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 장 지: 어음리 제2재장지(발레뒫)선영</p> <p style="font-size: small;">부 인 김 진자 아 들 김 봉 며느리 조은애 김 구 이순애 김 릉 김 릉 송경희 김 완순 사 위 김윤석 김희송 손녀 김기량 김덕영 김 환 김태운 김 진영 손녀 김은희 김아영 김근우 김민영</p> <p style="font-size: small;">※ 연락처: 김 봉 010-4715-7661 김 구 010-8661-2888 김 릉 010-3697-7475 김 릉 010-9239-0834</p>	<p style="text-align: center;">부 고</p> <p>정진호(삼성디스플레이 과장) 아버지 동래정공 평화(향년 64세)께서 서기 2022년 9월 11일 20시 2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p> <p>▶ 일 포: 2022년 9월 13일(화요일) ▶ 발인일시: 2022년 9월 14일(수요일) 오전 7시 ▶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실 ▶ 장 지: 성산읍 수산리 선영</p> <p style="font-size: small;">부 인 김 정연 아 들 정 진 호 며느리 소 진 아 딸 정 소 이</p> <p style="font-size: small;">※ 연락처: 김정연 010-2050-5429 정진호 010-3065-8810 정평원 010-3698-3434</p>	<p style="text-align: center;">부 고</p> <p>강익선 어머니 원주변씨 병호(향년 90세)께서 서기 2022년 9월 11일 13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p> <p>▶ 일 포: 2022년 9월 13일(화요일) ▶ 발인일시: 2022년 9월 14일(수요일) 오전 8시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 ▶ 장 지: 용강별순공원</p> <p style="font-size: small;">아 들 강익선 며느리 오명자 강익철 고혜선 딸(故)고순희 손 자 강동휘 손 부 고새미나 강 한 강두진 손녀 강윤경 강진아 강다혜</p> <p style="font-size: small;">※ 연락처: 강익선 010-2612-3392 강동휘 010-4245-3392 강익철 010-4691-6923 강다혜 010-2689-6923</p>	<p style="text-align: center;">감사의 말씀</p> <p>이번 저희 아버지 김해김공 옥천(前제주보훈지청 보훈과장·향년 91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p> <p style="font-size: x-small;">2022년 9월 13일</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font-size: x-small;">아들 김중훈</td> <td style="font-size: x-small;">며느리 이윤희</td> </tr> <tr> <td style="font-size: x-small;">딸 김애생</td> <td style="font-size: x-small;">사 위 오재운</td> </tr> <tr> <td style="font-size: x-small;">애순</td> <td style="font-size: x-small;">김동수(동생)</td> </tr> <tr> <td style="font-size: x-small;">애자</td> <td style="font-size: x-small;">조창래</td> </tr> <tr> <td style="font-size: x-small;">애경</td> <td style="font-size: x-small;">오기영</td> </tr> <tr> <td style="font-size: x-small;">애실</td> <td style="font-size: x-small;">최종욱</td> </tr> <tr> <td style="font-size: x-small;">애란</td> <td></td> </tr> </table>	아들 김중훈	며느리 이윤희	딸 김애생	사 위 오재운	애순	김동수(동생)	애자	조창래	애경	오기영	애실	최종욱	애란	
아들 김중훈	며느리 이윤희																
딸 김애생	사 위 오재운																
애순	김동수(동생)																
애자	조창래																
애경	오기영																
애실	최종욱																
애란																	
<div style="text-align: right;"> <p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margin: 0;">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p style="font-size: small; margin: 0;">한라일보 광고문의</p> <p style="font-size: 1.5em; font-weight: bold; margin: 0;">750-2828</p> <p style="font-size: small; margin: 0;">서귀포지사</p> <p style="font-size: 1.5em; font-weight: bold; margin: 0;">732-5552</p> </div>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2022년 09월 13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조전음호남향우회 영농조합법인 제주시 조전음 일동동로 1091 청산인 이광 현</p>																	